

농림축산식품부

'15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128개 도축장(소·돼지 78개소, 닭·오리 50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 상황을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매년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에 따라 도축장 위생관리수준을 평가 발표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5개 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8개 단체), 외부전문가(8개 기관)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HACCP 운용 적정성에 대해 적합, 부적합(재평가)으로 판정하였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HACCP 운영 수준은 향상되었으며, 부적합 도축장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재평가)”은 38개소(30%)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점수는 평균 87.7점으로 전년(84.9점) 대비 2.8점 상승하였고, 부적합 도축장은 38개소였다('14년 : 39개소, 30% → '15년 : 38개소, 30%).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돼지)는 6개

소가 증가('14년 20개소, 26% → '15년 26개소, 33%)하였으나, 가금류(닭·오리)는 7개소가 감소('14년 19개소, 35% → '15년 12개소, 2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유류 도축장은 법령위반에 따른 선행요건 부적합 지적사항이 증가한 반면, 가금류 도축장은 종업원의 위생관리 이해수준 향상 및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도축검사관 배치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부적합 작업장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31개소(소·돼지 21개소, 닭·오리 11개소), 34건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14년 : 28개소, 22% → '15년 : 31개소, 2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위반건수 34건 중 시설기준 위반 12건(35%), HACCP 관리 부적정 8건(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건(15%), 기타 3건(9%)

이에 금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도축장* 선정(소돼지 포유류, 닭오리 가금류 도축장 각 10개소) 및 최우수업체**(4개소)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우수 도축장 : (포유류) 고령축산물공판장, 광축, 금호실업, 김해축산물공판장, 민속엘피씨, 부경축산물공판장, 영남엘피씨, 평창기업, 화정식품, 횡성케이

씨, (가금류) 금화식품보령공장, 마니커동두천지점, 성화식품, 유진, 주원산오리, 참프레, 체리부로, 크레치코,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

** 김해축산물공판장, 부경축산물공판장,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

또한, 부적합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순회감독을 통한 기술지도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으로
축사 화재예방 나서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9월부터 '15.8월까지 축사 화재 발생시, 평균적으로 돈사는 96.2백만원, 계사는 54.1백만원, 우사는 5.4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겨울철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체 대비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31.1%, 36.8%를 차지한다. 이러한 축사 화재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7.4%, 부주의가 28.1%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사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12월 3일(목) “축사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축사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2. 축산농가 등의 전기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전기안전교육

3. 축사시설 설계도 전기설비 안전 관련 사전검토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표준 제안 및 사업 참여
5.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추진 시 상호협력 및 자문

향후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사 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축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겨울철 법정 검사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시, 축사설계도에 대한 전기안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도입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시 상황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 안전설비를 개선한 축산농가는 축사특약 보험료를 할인받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전기 안전관리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별도의 비용부담 변동 없이 안전관리를 위한 노동력 감소, 화재발생 가능성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축사 안전관리에 창조성이 가미된 사례로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화재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분석법 편람
제작 및 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12월 14일 「동물용의약품 분석법 편람」을 제작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본 편람은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서 오랜 기간 항생물질의 국가검정 및 화학제제의 검사 업무를 통해 축적된 분석지식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편람은 분석법 및 분석물질의 종류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적정법 및 분광광도법, 소독제 정량법으로 총 3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분석법 수는 220개를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동물용의약품 공정서는 서술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자어가 많아 이해가 어려워 분석법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편집하였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용의약품 → 동물약품관련규정)에 편람을 게시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분석 담당자는 “동물용의약품 분석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 및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 배양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용의약품
질의·응답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및 등록현황 ▲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위험성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일일섭취허용량 :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

위해성이 큰 물질(발암물질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검출(시험법의 정량한계)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생명자원 다양성 확보와 분산 보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평가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가축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11개 기관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5축종12품종 1만4,000여 마리의 가축을 나눠 보존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기관별 실적에 대한 관리기관 지정 지속 여부 심사와 신규 기관 지정이 이뤄졌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필요성과 운영 실적, 자원 활용 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 9곳, 대학 2곳 등 11곳 모두 관리기관으로 갱신됐다.

신규기관으로 재래 흑염소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경상대학교(부속목장)를 추가 지정했다. 경상대학교는 국내 재래흑염소 30여 마리를 40여 년 동안 외부와 교류 없이 폐쇄적으로 보존해오면서 고유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서울대학교를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했다.

갱신 대상 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2016년 1월 초 협약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지속하게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한 신규 대상 기관은 12월 중순께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영무 센터장은 "법률 개정 후 처음 실시하는 이

번 평가를 통해 국내 가축생명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관리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말연시 나눔경영 실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지난 12월 4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천3백여만 원을 지원키로 직원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나눔경영을 위해 '13년도부터 전 직원이 매월 기본급의 0.2%를 적립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금은 지난 12월 21일 국군장병 위로금과 KBS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2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소속 직원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3명 선정하여 각 1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도본부·사무소 등 단위기관 54개소에서 자매결연 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1천6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6년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계속하여 적립하여 나눔경영을 지속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홈플러스와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지난 12월 4일(금) 11시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본사에서 홈플러스와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홈플러스 HACCP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HACCP 전담 심사관 배정 및 교육·기술지원, HACCP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적극 실시한다.

홈플러스도 HACCP 전담조직 구성, 유통분야 HACCP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김진만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홈플러스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한다면 ‘홈플러스’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축산물위생안전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원은 홈플러스와 기술지원 및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인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농가를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장에서부터 매장,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Ⅲ유형※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9일 밝혔다.

※ Ⅲ유형 : 소속인원 300명 이상~1,000명 미만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며, 외부·내부 청렴도 및 부패사건·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조사 결과, 2015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종합청렴도는 8.85점으로 2014년 평가 결과에 비해 0.77점 상승했다.

또한 이는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평균 7.89점에 비하면 0.96점이 높고, Ⅲ유형 평균 8.28점보다 0.57점 높은 점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구현을 위해 2015년 반부패청렴TF(태스크포스)팀 운영, 청탁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부정위험 관리체계 구

축 등을 추진했다.

박종운 원장직무대리는 “기관의 청렴과 윤리경영은 전 직원의 참여와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는 평소 청렴한 업무처리를 생활화한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최우수기관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재수)가 지난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식품산업정보, 미래로의 창을 열다’라는 주제로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식품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산업 매트릭스 분석 및 2015 식품산업 키워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중 ‘2015 식품산업 키워드’는 올 한해 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을 ‘건강(안전)’, ‘효능’, ‘맛’의 주요 3대 키워드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이어, 두 번째 세션 ‘식품산업 진흥과 농업 연계’에서는 식품산업 가치사슬과 연계 구조를 분석했다. 또한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로컬푸드 사회적 가치와 식품산업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춰 로컬푸드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농업의 6

차 산업화' 및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과 궤를 같이 해 향후 식품산업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가공식품 소비 행태' 세션에서는 올해의 가공식품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PB 가공식품 및 간편식에 대한 태도와 1인 가구 식품소비유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인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식품 소비 패턴의 차이점도 짚어보고, 1인 가구를 가공식품 소비 형태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것으로, 최근 1인 가구 수가 500만을 넘어서며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심포지엄 행사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aT에서 제공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이하 FIS)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했다.

*FIS는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식품 관련 데이터들을 한자리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한 식품산업 통합 정보 인프라로, 국내외 식품산업 관련 주요 통계와 동향자료, 국제원자재 가격 및 수급정보, 원료 농산물 관련 통합 정보 및 가공식품 품목별 매출액과 식품기업 관련 정보 등을 aT FIS 사이트(<http://www.atf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농협중앙회

청정축산 '범축산인 결의 대회' 개최



축산농가의 냄새저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축산인 결의대회'가 안성팜랜드에서 12월 1일

열렸다. 농협 축산경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축농가, 정부·행정기관, 농협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축종별 시범농가 선정 육성 △냄새 저감 모델 농장의 교육장 활용 △축산냄새 저감 전담기구 운영 △축산냄새 전문관리 인력 육성 △청정축산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축산 냄새 제로화' 의지를 다졌다.

농협 축산경제 이기수 대표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등은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청정축산운동의 성공적 진행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경쟁력 있는 축산업 환경조성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청정축산 홍보, 축산냄새 체험, 공중 살포기 및 소독차량 전시, 탈취제 살포 시연행사를 하는 등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